

동구 '제22회 추억의 총장축제' 준비 '착착'

10월15-19일 '추억의 동화' 주제
시민 주도·참여 기획·운영 등 확대
청년기획단·구민 제안 프로그램 ↑
내년 ACC 협업 등 글로벌 확장도

광주 동구가 '제22회 추억의 총장축제'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준비를 순조롭게 이어가고 있다. 19일 동구에 따르면 오는 10월15-19일 금남로와 총장로, 예술의 거리, 5·18민주광장 등에서 열리는 이번 축제는 '추억의 동화'를 주제로 시민이 주도하고 함께 만드는 방식으로 기획되고 있다.

동구는 올해를 시작으로 매년 '추억의 ○○' 시리즈를 선보이며 축제의 브랜드를 체계적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다음 해에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과의 협업을 통해 아시아 문화 콘텐츠와 결합한 국제적 축제로의 확장도 계획 중이다. 올해 총장축제는 기존 '시민 주도형' 방침이 더욱 강화됐다. 대표적으로 '청년기획단 편이' 3기 모집 인원이 당초 20명에서 30명으로 늘어났고, 모집 기간도 6월15일에서 22일까지로 연장됐다. 이들은 축제 기획 단계부터 현장 운영까지 전 과정에 참여하며, 시민의 눈높이에서 프로그램을 함께 만들어가는 역할을 한다. 시민 참여 콘텐츠도 주목된다. 동구는 구민을

대상으로 한 시민기획 프로그램을 5개 내외로 구성해 1차(5월27일-6월22일), 2차(7월7-27일)로 나눠 공모한다. 이는 기존보다 참여 규모를 키워 더 다양한 아이디어가 축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 조치다. 지역 대학과의 협업도 추진한다. 지난해에 이어 조선대학교 '총예기획단'과 함께 페어리드 연출·안무 등을 논의 중이며 청년 예술가와의 연계도 검토하고 있다. 동구는 올해 '아시아 컬처 쇼'를 시작으로 오는 11월 ACC와의 협업 모델을 모색할 예정이다. 향후에는 ACC의 공연과 콘텐츠를 축제와 연계해 예술성과 국제성을 갖춘 행사로 발전시킨다는 구상이다. 일택 동구청장은 "올해 총장축제는 시민이

주인공인 진정한 시민의 축제가 될 것"이라며 "쉽고 다양한 참여 방식으로 모두가 동화 속 주인공이 돼 특별한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축제 첫날인 10월15일에는 금남로 메인 무대에서 개막쇼 '추억의 동화'가, 16일에는 '아시아 문화의 날'로 각국 문화와 전통을 소개하는 컬처 프로그램이 각각 진행된다. 17일 '가족의 날'에는 병아리 축제와 청소년 버스킹, 마스크 파티 등이, 18-19일 '행진의 날'에는 ▲자치구 대동놀이 ▲주먹밥 경연대회 ▲페어리드 ▲자전거 레이싱 ▲불꽃놀이 등이 이어진다. 축제의 마지막 밤에는 페막식 대신 불과 드론이 결합된 '피날레 드론쇼'가 펼쳐지고, 제22회 총장축제의 주제도 공개된다. /장은정기자

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정기인사

전남도교육청은 19일 "오는 7월1일자 지방공무원 정기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인사 규모는 총 600명으로, 승진 123명(3급 1명·4급 5명·5급 1명·6급 69명·7급 42명·8급 5명), 전보 328명, 퇴직준비교육·정년(명예)퇴직 등 209명, 신규임용 39명 등이다. ▶인사명단 18면
도교육청은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원칙에 따라 조직의 효율 및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역량 있는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지역과 세계가 공생하는 글로벌 전남교육' 정책 추진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방향으로 이번 인사를 실시했다. 김대중 도교육감은 "이번 인사는 어려운 교육 환경 속에서도 성실히 업무를 처리하고 학교 현장 지원에 헌신한 공무원을 우대했다"며 "앞으로도 정량하고 공정한 인사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고, 미래 전남교육 행정의 경쟁력 강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대중 기자



장마 전 양파 수확 무더운 날씨를 보인 19일 무안군 일로읍의 한 들에서 농민들이 장마 전 막바지 양파 수확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김대중 기자·조영권 인턴기자

도교육청 "한반도 종단 꿈, 전남서 다시 출발"

중단됐던 '유라시아 횡단' 재추진
남북 학생 교육교류 추진단 구성
관계 개선 마중물 등 기대감 '솔솔'

전남도교육청이 남북 학생 교육 교류를 기대하며 멈춰있던 '한반도 종단의 꿈'을 향해 다시 힘찬 발걸음을 내딛는다. 19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016년 '한반도 종단'을 목표로 유라시아 횡단 프로젝트를 추

진하다 남북 관계 경색으로 아쉽게 중단된 남북 교류 프로젝트를 재추진한다. 전남은 국도 1호선의 시작점이자 김대중 전 대통령의 고향으로 평화통일에 대한 역사적·지리적 상징성과 정서적 기반을 갖춘 지역이다. 이곳 전남에서 시작되는 학생 중심 교육 교류가 경색된 남북 관계 개선의 마중물 역할을 할지 주목된다. 도교육청은 오는 7월 중순께 2주간 전남 고등학생 1학년 60여명과 함께 고려인 후손들이 거주하고 있는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을 방

문해 통일에 대한 염원과 가치 등을 경험하고 돌아올 예정이다. 이번 교류는 당시의 경험을 살린 한반도 평화의 실천이자 제21대 대통령의 핵심 국정과제인 '남북 간 신뢰 회복과 교류 협력 활성화'와도 방향을 같이한다. 특히 학생이 주체가 되는 비정치적 교류로 남북 화해의 가치를 교육 현장에서 실현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도교육청은 ▲UN에서 개최되는 '북한 친구에게 그림으로 편지쓰기' 전시 참여 ▲제3국에

서의 남북 학생 평화포럼 개최 ▲독서인문학교 연계 남북 학생 교육 교류 추진 등 단계적 로드맵을 구성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남북 학생 교육 교류 추진단'을 구성해 지자체·교육부·통일부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하며, 기 조성된 남북교류기금을 활용해 정책 실행력을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국회 정원과 서명운동 등을 통해 국민적 공감과 지지 기반을 넓혀갈 방침이다. 김대중 도교육감은 "학생이 이끄는 교육 교류는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 남북이 가장 먼저 손잡을 수 있는 통로"라며 "전남에서 시작된 이 작은 걸음이 평화를 향한 실질적인 움직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따뜻한 관심과 전폭적인 지원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김대중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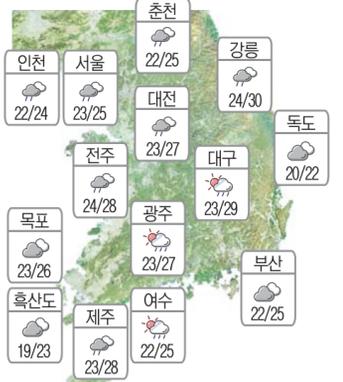
오늘의 날씨

☀해돋이 05:18 해질 19:50 🌧달돋이 01:00 달질 14:04

●광주·전남 날씨

광주	흐려져비	23/27	장성	흐려져비	23/27
목포	흐림	23/26	보성	흐림	21/25
여수	흐려져비	22/25	함평	흐려져비	23/27
나주	흐려져비	22/27	순천	흐려져비	22/26
완도	흐림	22/27	영광	흐려져비	23/27
구례	흐려져비	23/27	진도	흐림	22/26
강진	흐림	22/27	흑산도	흐림	19/23
해남	흐림	22/27	고흥	흐림	21/27
광양	흐려져비	22/26	담양	흐려져비	23/27

●전국 날씨



●바다 날씨

위치	오전/파고(m)	오후/파고(m)
서해 앞바다	1.0-2.0	1.0-3.0
남해 앞바다(북)	1.5-2.5	1.5-3.5
남해 앞바다(남)	1.5-2.5	1.5-3.5
남해 앞바다(동)	0.5-1.0	0.5-1.5
남해 앞바다(서)	1.0-2.0	1.0-2.0

●물때

지역	만조	간조	만조	간조	만조	간조
목포	08:41	01:35	03:35	10:04	04:22	11:12
	21:29	14:19	16:33	22:29	17:17	23:39

●생활정보지수

👜 **니들이 30** 🚗 **세차 20**
 감기 조심해요 세차는 다음으로
 🧤 **빨래 40** 🏃 **운동 30**
 실내건조 좋아요 실내운동 즐겨요

●주간 날씨

21일(토)	22일(일)	23일(월)
☁(23/26)	☁(21/28)	☁(22/28)
구름비	흐림	흐림
24일(화)	25일(수)	26일(목)
☁(21/28)	☀(21/28)	☁(21/29)
흐림	구름조금	흐림

▶ 날씨안내 : 국번없이 131

자연도, 부모님도
사랑합니다
 아름다운 자연 / 사용기한 없음 / 365일 관리 / 광주에서 20분 / 무료 안치
광주수목장 문의 062.449.4446